

문화

한지에 빛 담아낸 '燈'의 예술 전통 넘어 현대적으로 풀어내

연등회 초대전 여는

인송자 등작가

“등은 선(와이어)과 면(종이)으로 이루어 지지만 빛과 결합하면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내죠. 그래서 등은 빛의 예술이라 할 수 있어요. 내부의 전구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등 작업은 빛의 아름다움을 무궁무진하게 발견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이자 예술입니다.”

등 작가 인송자 씨(44)가 12월 4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 갤러리에서 연등회보존위원회 초대전 '바람이 분다'를 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의 사물과, 현대 조형 작품 등 10여 점 을 선보인다.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라도 인 작가의 손길을 거치면 은은한 빛의 편안함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예술로 빛어진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와이어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되 닥종이의 질감을 이용해 먹 빛을 표현, 사물의 아름다움을 빛의 예술로 탄생시켰다.

“본래 사물의 의미를 제 시각으로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물 본래의 이미지가 있지만 작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다양한 실험을 거쳐 닥종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빛의 세기를 조절해 새로운 느낌을 표현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사물들에 얽힌 설화 등을 작품에 녹여 보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권좌’ ‘화석’ 등 현대적 작품들은 시각적 아름다움은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작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세월호 사건’ 등 최근에 속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많은 실망도 했고요. ‘불편한 권좌’는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자리가 지휘의 자리가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를 통해 그



빛의 예술을 등에 담아내는 인송자 작가. 권력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자신의 작품 '불편한 권좌' 앉아 있다.

인송자 작가는 대학서 조각을 전공하고 등공예의 매력에 빠져 1999년부터 전통등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후 '빛놀이'라는 공방도 만들어 생활 속에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왔다.

특히, 드라마 '부자의 탄생', 교양프로그램 '낭독의 발견' 등 다수의 방송에 등작품을 협찬, 대중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SBS '생활의 달인'에 등공예 전문가로 직접 출연해 대중들에게 등 예술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전해준 바 있다.

그는 이런 활동을 통해 등예술이 우리 일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예술임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강조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민속주점이나 전통 찻집에나 걸려 있는 것이 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각 가정 등 하나만 잘 사용해도 색다른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만큼 등은 옛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자 저는 꾸준히 등 작품의 현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로서 그의 목표는 무형의 빛을 가지고 잘 볼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빛은 세상의 근본이고 에너지의 시작이죠.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종이는 빛의 색깔을 곱게 담아주는 거름망 역할을 해요. 상상하는 것을 등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늘도 종이와 빛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란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빛을 잘 가지고 놀고 싶다는 인송자 작가. 그렇게 그는 자유자재한 빛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며 빛의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려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빛은 세상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또 하나의 세상을 열어가는 문이 되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절집 사물 은은한 燈으로 승화

무한한 빛의 아름다움 표현

TV방송 협찬·직접 출연

일상 속 등의 대중화 모색도

자리는 누가 누구에게 부여한 자리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던 대중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냈습니다.”

여기에 연잎 구조를 큰 원으로 확대시킨 '화석'은 빛의 모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작품으로 담아냈는데, 이는 수목화한 점이 입체 미술로 탄생한 듯하다.



지난해 연 개인전 '화석'의 작품 중 하나. 연잎 모양으로 물고기 형상을 조성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사물 작품 중 하나인 '범종'

망령된 생각, 하늘 해가 보고 있는 걸

조선최고의 수록도량

홍무(洪武) 정축년 정월 을묘일에, 상이 내신(內臣) 이득분(李得芬)과 중 신하 조선(祖禎) 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국가를 맡게 된 오직 조종(祖宗)의 적신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상의 덕을 보답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아서는 안된다. 또 신하와 백성 중 혹은 국사에 죽고 혹은 스스로 죽은 자가운데 제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엎어져도 구원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내가 매우 근심한다. 옛 절에도 수록도량(水陸道場)을 마련하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개설하여 조종의 명복을 빌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하니, 너희들은 가서 합당한 곳을 찾아보게 하라.” 하였다. 사흘째 되는 정축일에 이득분 등이 서운관(書雲觀)의 신하 상충(尙忠)·양달(陽達)·승려 지상(志祥) 등과 함께 장소를 찾아 삼각산에서부터 도봉산(道峰山)까지 둘러보고 북망하여 말하기를, “여러 절 중에 진관사(津寬寺)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고 하니, 여기서 상이 명령하여 도량을 이 절에 설치하게 하였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⑦ 진관사 ①



수려한 산세와 우거진 노송 속에 자리한 진관사는 조선초기부터 수록도량으로 이름났다.

불문공령전두은해활 (不聞鵝嶺前頭銀海關) 령경협길언불상(橫庚嶽街言不爽)

노송이 꿈을 꾸니 혼령이 보이는 듯 큰 별이 땅에 떨어져 금빛이 휘황했네. 문득 변하여 용이 되어 비늘이 꿈틀대더니 다시 보니 용이 아니라 사람이 마당에 있었네. 오른손으로 풍운 뇌우 권한을 잡아 쥐고 왼손으로 웃으면서 하늘 중앙을 가리켰네. 연꽃 자리 아래에는 땅을 깊이 꿰고 옥정이 부지런히 닦아두어 호위했지. 산 앞에 비수 품은 너희 망령된 생각을 당당한 하늘 해가 보고 있는 걸 어찌하리.

누가 알았으랴 삼각산 오색구름이 한 줄기가 은연중 청송 고개에 닿아 있는 줄을 세상 밖은 뿔뿔이 바다가 되는 걸 막지 못하고 인간에는 문득 하늘 가득하던 그물 거두어졌네. 신월사 가는 길에 노랫소리 가득해라. 구오라 용이 날아오르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보네. 못 들었나, 곡령 앞머리에 은빛 바다 넓었는데 왕위에 오른다는 꿈 풀이가 틀린 말이 아니었음을.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李瀾 1681~1763)의 문집 <성호전집(星湖全集)> 제7권에 전하는 이 가사는 해동악부(海東樂府) 가운데 '성변룡(星變龍)'이라는 악곡의 가사다. 악부는 중국 한나라 때

각 지방의 음악을 채집하여 정리하는 관서의 이름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악곡은 사라지고 가사만 전하여 시의 형태로 변화했다. 해동악부란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물을 소재로 사용한 악부다.

별이 용으로 변한 이야기

악곡 '성변룡'은 별이 변하여 용이 되었다는 뜻이다. 고려 8대 황제 현종의 불우했던 젊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다. 현종이 천추태후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넘기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오늘날 진관사인 신월사에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성변룡'의 내용이다. <성호전집>에서는 가사를 살기 전에 그 내용을 간추려 놓았다.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요긴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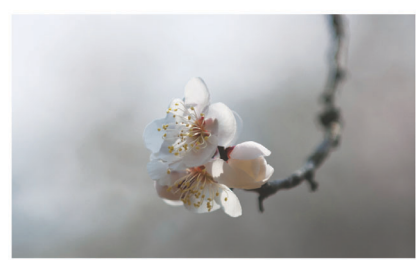
대량원군(大良院君) 순(詢)은 안종(安宗) 왕육(王郁)의 아들이다. 모후 천추태후(千秋太后) 황보씨(皇甫氏)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김치양(金致陽)과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김치양과 모의하여 그 아들을 왕의 후사로 삼으려 하여, 대량원군을 꺼려 강제로 출가(出家)하게 하니, 이때에 대량원군의 나이가 열두 살이었다. 처음에 송교사(崇敎寺)에 머물 때에 어떤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큰 별이 절의 뜰에 떨어져 용으로 변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대량원군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뒤에 삼각산(三角山) 신월사(神月寺)에 머물렀는데 천추태후가 사람을 보내 해치고자 한 것이 여러 차례였다. 절에는 노승(老僧)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방안에 구멍이랄 파 속기고 그 위에 침상을 놓아 불측한 재앙을 방지하였다. 나중에 목종(穆宗)이 승하하자 맞아가다가 세우니, 이가 현종(顯宗)이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의 선원장 무상법현스님의 전법 수상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3판 인쇄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불러주시면 초청법회 및 싸인회를 통해 전법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사찰과 단체(회사, 기관, 학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 전국 유명서점과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을 50권 이상 주문하실 분은 법현스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선원의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무상법현 일정 :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오후, 2,3,4주 일요일 오전, 음력 18일은 법회를 하고 있어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상기 외의 시간과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에는 언제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 무상 법현 합장

주소 :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205호 / 연락처 02)386-4755 이메일 opentemple@hanmail.net / 스님 직통 010-5245-0370